

원을 투입, 첨단 암센터로 특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암센터에는 첨단 암치료 장비인 ‘사이버나이프(Cyber-Knife)’와 ‘양전자단층촬영기(PET-CT)’ 등이 설치된다. 로봇팔에서 나오는 방사선 빔을 이용해 종양을 제거하는 사이버나이프는 100억원대를 호가하는 첨단 장비로 국내에는 강남성모병원과 원자력병원 등 2곳에만 설치돼 있다.

이 병원은 암센터를 통해 지방과 동남아 지역의 해

외 환자 유치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관계자는 “암센터에 도입되는 사이버나이프와 PET-CT는 국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최첨단 기종으로 정했다”면서 “첨단 장비를 이용해 암 치료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교통이 편리한 공항의 이점이 알려지면 해외 환자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내용출처 : 연합뉴스, 2006. 5. 7

해의 동정

일본, TRU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 병설 처분 가능성 열어 두기로

일본 종합 자원 에너지 조사회(경제산업상의 자문기관) 전기사업 분과회 원자력 부회의 방사성 폐기물 소위원회(위원장 삼도야키오 지구환경 전략 연구기관 이사장)는 5월 22일의 제8회 회합에서 보고서의 골자안을 승인했다.

소위원회는 지층 처분되는 TRU 폐기물에 대해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의 병설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을 굳혔다. TRU 폐기물의 처분 비용은 일본 겐쇼오(原燃), 원자력 연구 개발기구(JAEA), 전력회사에서 거출된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2007년의 통상 국회에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NUMO법)의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의 골자는 (1)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영국, 프랑스로부터의 반환 폐기물, (3)장 반감기 저발열 방사성 폐기물(TRU 폐기물) 등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TRU 폐기물 중 지층 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고준위 폐기물의 최종 처분과 같은 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원자력 위원회가 인정한 병설 처분이 가능하도록 고준위 폐기물과 TRU 폐기물의 처분 실시 주체를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단지 병설 처분에는 현지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설계에서는 NUMO법의 인가 법인이 처분 사

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병설 처분은 선택 가능한 사업 옵션 형태가 되도록 했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 환경 정비기구(NUMO)가 다루는 경우에는 업무 추가의 신청 및 인가 형태로 대응하기로 했다.

TRU 폐기물의 지층 처분사업 비용은 (1)일본 국내에서의 재처리와 MOX(우라늄·플루토늄 혼합 산화물) 연료 가공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본 겐쇼오가, (2)토카이 재처리 공장 등에서의 발생 분은 일본원자력 연구 개발 기구(JAEA)가, (3)영국, 프랑스로부터의 반환 폐기물의 발생 분은 전력회사가 담당하고, 국가가 거출금 단가를 산정한 후 이들 발생자가 필요액을 연도마다 거출하게 된다. 이들은 원자력 환경 정비 촉진·자금관리 센터 등의 외부 자금 관리 법인이 관리되지만 고준위 폐기물과는 별도 계산으로 관리된다.

한편 해외로부터의 반환 폐기물에 대해서는 영국이 제안하고 있는 저준위 폐기물과 방사선 영향이 등가인 고준위 폐기물로 교환·반환하는 내용의 타당성을 동 소위원회가 승인했다. 일본의 전력 업계는 약 650억 엔을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되지만 일본 국내에서의 저장·처분 비용과 해외 수송 등의 비용으로 약 2천억 엔(할인율 2% 환산)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가 제안한 아스팔트 교체 폐기체로부터 유리 고화체로의 형태 변경에 대해서는 이미 원자력 위원

회가 기술적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어 TRU 폐기물 처분 제도를 적용하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내용출처 : <http://www.shimbun.denki.or.jp/backnum/news/20060523.html>

체르노빌 사고 20주년, 여전히 다른 상반된 시각들

체르노빌 원전 사고 20주년을 맞아 미디어, 여론선 도충, 환경단체 기타 이해관계자 집단들은 저마다 기념식을 가졌다. 그러나 이들은 체르노빌 사고에 대해서로 다른 의견을 내 놓았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는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행사와 함께 20주년을 기념하였다.

지난주 우크라이나의 한 보도진은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은 체르노빌을 기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특히 암에 걸리기라도 하면 한결같이 체르노빌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MSNBC가 방송한 한 인터뷰에서 체르노빌 포럼의 의장을 수행하고 있는 버튼 베네트(Burton Bennett)는 UN이 작년 사고의 영향에 관해 발간한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였다. UN의 보고서는 4,000명 정도가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방사선의 영향으로 암에 걸려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까지 사고로 인한 방사선으로 인해 직접 사망한 사람은 56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망한 사람의 대부분은 사고 진화를 위해 투입된 비상조치 작업자이며, 갑상선암으로 사망한 9명을 포함하고 있다.

베네트 의장은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건강상 문제에 대해 분명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그들이 높은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향이 방사선에만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체르노빌 지역주민의 거주환경은 방사선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든 그렇지 않

은 곳이든 좋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국제암연구기구(IARC)도 자체적인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4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IARC는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방사성 낙진으로 유럽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암 발생은 전체 유럽에서 1,000명의 갑상선암과 4,000명의 기타 암 증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 유럽의 암발생 경향을 분석하면 현재로서는 암발생률에서 어떠한 증가도 발견할 수 없으며 단지 가장 오염된 지역에서는 갑상선암의 증가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도 지난주 자체적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린피스는 보고서에서 체르노빌에 의한 질병 발생이 UN보고서가 제시한 숫자보다 20배 이상 높다고 반박하였다.

각종 신문의 칼럼란에서도 체르노빌에 대해 많은 얘기가 쏟아져 나왔다. IEEE 스펙트럼 잡지의 선임편집장인 윌리엄 스위트(William Sweet)는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체르노빌은 미국 내 원자로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고 평했다.

그린피스의 공동창립자 중 한 사람인 패트릭 무어 박사도 체르노빌이 엄청난 재앙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 사고를 이용해서 원자력을 반대하는 용도로 다른 사람을 겁주게 하는 것은 더욱 큰 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내용출처 : <http://member.nei.org/documents/overview/acrobat/NEIC05200611626.pdf>